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 교류

17호

2022.07.-08.

column 칼럼	부울경 지역 예술인과 도모의 순간을 쌓아가기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issue 이슈 1	부울경 지역 축제 간 콘텐츠 교류 방안 조원희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운영위원장
issue 이슈 2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볼 점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issue 이슈 3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지역 예술가 간 교류 김정주 GachiART 대표,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지역 간사
문화+아카이빙	부울경 아키비스트(Archivist)양성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박희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7. - 08.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7호 | 2022.07.-08.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7호에서는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 교류'를 주제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문화예술로 만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축제, 문예회관, 예술가 간 교류부터 지역 아카 이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시선으로 함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살펴볼까요?

Contents

- | | |
|---|---------------------------------------|
| 03 column 칼럼 | 12 issue 이슈 3 |
| 부울경 지역 예술인과
도모의 순간을 쌓아가기 |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지역 예술가 간 교류 |
|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김정주 GachiART 대표,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지역 간사 |
| 06 issue 이슈 1 | 15 문화+아카이빙 |
| 부울경 지역 축제 간 콘텐츠 교류 방안 | 부울경 아키비스트(Archivist)양성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
| 조원희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운영위원장 | 박희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
| 09 issue 이슈 2 | 18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
|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볼 점 |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
|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 | 22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부울경 지역 예술인과 도모의 순간을 쌓아가기

원 향 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도모[圖謀] : (사람이 일을)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다

동질성과 차이로 엮인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따로 또 같은 느낌을 가진 지역이다. 타 지역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한데 묶여버리는 독특한 언어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세 지역 간의 미묘한 언어차이로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관계이다. e의 2승, 2의 2승, e의 e승은 대동단결하여 발음할 수 있지만 ‘뉘라카노?’ ‘뉘라카네?’ 와 같은 단어로 서로의 출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인접해서 하나로 묶일 것 같지만 서로의 고유한 심지가 굳건히 서 있는 지역인 것이다.

부울경 예술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경계 넘기

지난 해 정책연구센터에서 시행한 [2021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역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 활동지역 외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1%가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27.3%는 경남과 울산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타 지역 활동 이유를 물어보니 ‘협업 동료/네트워크가 많아서’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왔다. 이미 예술인들은 지역 간 교류와 이동에 큰 이질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올해 문화부권 연구조사 FGI(초점집단면접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부울경 지역 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였고, 함께 새로운 활동을 도모한 사례들도 적잖이 수집할 수 있었다. 부울경이라는 지역적 경계가 예술인들에게는 동료와 네트워크를 만날 수 있는 만남과 도모의 장인 것이다.

함께 상상하는 자리 - 부울경 문화분권 문화자치 상상토크

지난 7월 27일 영도 블루포트2021에서는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 문화자치 상상토크 “우리가 ○○ 할 수 있을지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문화자치 기초연구]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세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분권, 자치, 연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예총, 민예총 관계자들과 지역 문화활동가들이 모여 문화분권 자치에 대한 생각과 실천사항, 핵심 가치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세 지역이 모여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권한의 분산을 통한 수평적 관계맺음이기에 연대와 협력 이전 우리 지역에서의 분권과 자치 기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하였다.

참여자들은 문화분권과 자치에 대해 건강한 자립, 물리적 균형 등을 언급하면서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의 강조, 예술인 및 시민의 주체적 역량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울경 지역 간 연대에 대해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지워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다핵적 구조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고유함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술의 상상력으로 도모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기

이 자리는 그간 행정 영역의 단어로만 회자되던 분권, 자치에 대한 고민을 예술인들과 함께 나눠보고 예술인의 언어로 분권과 자치를 해석해보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연대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통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연대와 지역의 고유성을 더 잘 발현시키기 위한 연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액션플랜이나 협력의 장을 당장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했다. 상상으로 시작한 자리이다 보니 가능성의 타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상상토크라는 자리, 그리고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문화자치 기초연구]라는 연구를 통해 만난 부울경 지역 예술인들은 연대와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함께 만나는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울경 지역 예술인들이 새로운 것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다음 단계의 과제이다.

우선적으로 일단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급하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은 만남의 자리는 생산적인 다음 단계를 만드는데 동력이 되지 못한다. 더욱 구체적인 의지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도모가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울경 지역의 공통된 문제들, 지역사회 문제부터 예술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서로의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이번 토크와 FGI에서 제안되었던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부울경 지역 간 공동 가이드라인 구축이나,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공동의 예술활동 등이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연대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모의 자리는 문화행정 영역에서 짚아줘야 한다. 문화행정 영역에서는 이 도모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간 선부른 협의체 만들기, 조직화, 과업 중심 활동으로 인한 참여주체의 소진 등 우리는 그간 도모의 자리에서 문화행정이 제대로 된 포지션을 잡지 못했을 때의 시행착오를 이미 알고 있다. ‘거리두기’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적절한 문화행정 영역의 준비가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예술인 간 연대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잊지 말아야겠다.

부울경 지역 축제 간 콘텐츠 교류 방안

조원희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운영위원장

1. 커뮤니티비프 + 문화다양성 축제 매프

지난 2021년 10월 10일,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가 펼쳐지고 있는 부산 롯데시네마 대영점 6관에서는 2021 MAMF(문화다양성 축제 매프)영화제 수상작 상영회가 열렸다. 대상작인 이종현 감독의 <표류>를 비롯한 입상작 6편이 상영된 이날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 세계 영화제 중 최초로 상영된다는 뜻의 용어인 '월드 프리미어'라는 점이였다. 매프는 지난 2005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로 서울에서 시작돼 2010년 창원으로 옮겼고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중요한 문화 축제 중 하나다. 2021년에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중 영화 공모전 부분의 수상작 상영회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중 관객 혹은 관객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해 만드는 부문인 커뮤니티비프에서 수상작을 선공개해 이슈를 발생시키고, 이후 매프 축제 본 행사에서 시상식을 거행하는 프로세스가 이뤄졌다. 이것은 지역 축제간의 콘텐츠 교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다.

2.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역성 확장

부산국제영화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인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표적 국제 영화 페스티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영화제의 고향인 남포동에서 센텀시티 지역으로 주 상영장이 옮겨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일부 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고심 끝에 변화를 꾀했다. 2018년부터는 '커뮤니티비프'를 원도심에서 출발시켜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열리는 영화제의 본행사와 차별된, '관객의 직접 참여'를 통해 만드는 방식으로 영화제의 포맷 다양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인 2021년에는 '동네방네비프'를 출범시켰다.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 모든 곳에 영화 상영장을 구축해 부산 전 지역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게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였다. 2022년에도 계속될 '동네방네비프'는 관객이 영화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가 관객을 찾아가는 지향점을 지녔다.

현재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영역을 한 번 더 확장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비프가 '영화제의 일부분을 떼어다 원도심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동네방네비프의 확장 역시 단순히 영화제 지역 거점의 확산으로 그 의미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방네비프도 물리적으로 해당 구군에 영화제 베뉴를 설치한다는 개념에서 멈추지 않는다. 각 구와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장소, 그리고 해당 상영장의 콘셉트와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배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동네방네비프가 부울경 메가시티로 확장된다면 더욱 정교한 지역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운영자로서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3. 리멤버 부마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에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부마항쟁기념재단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만들고 있는 '리멤버 부마'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비프 특유의 거리 행사로 만들어진 첫 행사 때는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언론인 홍세화, 배우 동방우, 안미나, 가수 최성원 등의 게스트가 참여해 영화 상영은 물론 뮤지컬과 라이브 음악 공연까지 아우르는 '페스티벌 속의 미니 페스티벌'처럼 진행됐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였던 '부마민주영화제' 역시 씨네아트 리즘, 메가박스 마산 등 창원시 권역에서 열렸다. 부산과 마산이 동시에 일어섰던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념을 부산과 구 마산 지역에서 서로 콘텐츠와 예산을 공유하며 만들어낸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광역 행사가 아니라 역사적 연대성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런 근현대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지역성에 의한 교류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4. 지역 대표 축제

앞선 부산국제영화제의 이야기들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지역 축제간의 콘텐츠 교류에 대해서는 부울경 각 거점에서 열리고 있는, 이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은 물론 앞으로 지역성에 맞춰 개발해야 할 미래의 페스티벌들이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모든 축제가 각자의 분야에서 부울경을 가로지르는 허브로서 자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 관련 콘텐츠의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영화제들과 수평적 교류를 지속하는 어젠더를 가지고 있듯, 각 지역의 축제들이 한 분야의 허브가 되어 교류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2년 시작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클래식 음악제로 자리잡은 통영 국제 음악제는 지난해 코로나 문제로 아쉽게 취소되긴 했지만 부산시립 교향악단과 당시 '라이징 스타'였던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을 준비했었다. 임윤찬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22년 미국 난블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하면서 차세대를 책임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그 위상이 확장됐다. 부산과 통영의 지역적 교류로 예약된 거장 임윤찬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벌써 32회 행사를 치른 거창국제연극제 역시 한국 최고의 야외 연극 축제라 호명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연극 단체들이 활약을 펼치는 곳인 동시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크고 작은 극단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다. 클래식 음악은 통영, 영화제는 부산, 연극은 거창, 이런 식으로 각 분

야별의 허브가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 얻어지는 시너지는 무궁무진하다. 아카데미 음악상 2년 연속 수상자이며 영화음악과 라틴음악의 거장인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의 밴드 '바호폰도'가 두 번이나 공연하기도 했던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이 월드뮤직의 허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폐지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지속가능성은 상호관계성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단순히 한 페스티벌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된 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폐사할 수도 있다는 아쉬움을 던져준다.

5. 확산과 확장

현재 경남과 울산, 그리고 부산에는 적지 않은 페스티벌들이 촘촘히 배치 돼 있다. 진주의 개천 예술제와 남강 유등 축제, 밀양의 밀양 문화제, 울산 서머 페스티벌, 울산 고래 축제, 부산 록 페스티벌과 불꽃 축제 등 역사와 전통을 지닌, 혹은 새로이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끄는 축제들이 다양하다. 이런 축제들이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으며 확산하면 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년 내내 언제나 축제가 열리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연중 언제나 방문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호주의 축제 도시 멜버른을 떠올리게 된다. 빅토리아 주는 멜버른의 축제 모델로 호주에서 가장 문화적인 동시에 삶의 질이 높은 광역 자치주가 됐다. 큰 규모의 페스티벌들이 같은 장르의 작은 축제들과 상호교류의 관계성을 맺으며 확산하고, 그 문화적, 경제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확장한다면 가까운 미래, 경계를 넘어 연대하게 될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볼 점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문예회관의 역할이 다양해지는 시대이다. 공간을 기반으로 시설을 운영하던 시기를 벗어나 그 극장의 정체성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고 기획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순한 콘텐츠의 중간 제공자에서 적극적인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회관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한 미션을 부여받는다. 그 미션 중 최근 몇 년간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제작극장화, 문예회관 공연 콘텐츠의 제작이다.

공공문예회관은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간, 음향과 조명 등 극장 보유의 기기, 그리고 극장 소속의 기획자와 무대전전문인력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본 구성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나 문예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의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되어 있었던 터라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다.

멀리 해외나 타 지역 사례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부울경 권역의 문화예관에서 제작하거나 기획하는 콘텐츠가 꽤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작방향과 목적에 따라 지역예술인 또는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의 문화, 역사, 인물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전문제작진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등 민간제작사에서 만들어지는 작품과는 다르게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의 제작 방식 또한 공공극장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소속 문예회관이 제작 주관을 추진하거나, 문예회관이 직접 제작하는 방법)과 공모사업을 통한 제작(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협력사업’)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의 생산은 확대되는 반면에 콘텐츠가 유통되어 지속성을 가지고 관객과 만나는 일은 무척 드물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단계에서 제작의 목적과 방향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만들어진 이후의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해야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가야사 재조명과 함께 역사문화콘텐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스토리를 소재로 김해시와 김해문화재단이 제작한 창작 오페라 ‘허왕후’(2020년 제작), 부산의 신진예술인 참여와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문화회관의 협업으로 제작된 2개의 작품 ‘MOTI/어디로부터’(2021년 제작), ‘슈퍼타이거’(2022년 제작)는 극장 자체 제작으로 추진한 콘텐츠로 제작 검토 단계에서 작품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고민이 계획에 반영된 사례이다.

김해문화재단은 창작오페라 ‘허왕후’ 초연 이후 제17회 대구오페라축제(2021년), 2021 서울오페라 페스티벌(2021년), 제13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2022년) 등 공연을 지속해가고 있으며, 2023년 가야사문화권 도시 교류공연, 2024년 전국체전 주제공연 이후 김해예술인이 무대세트나 의상, 그리고 작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부산문화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의 방방곡곡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MOTI/어디로부터’ 공연을 2022년 11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으로 초청받아 경남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언급한 사례들이 제작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활용을 고민한 사례일 수는 있지만 콘텐츠 교류와 활용의 좋은 예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활용 예산의 확보, 타 극장 관계자와 관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성과 보편성 등이 뒤따라야 하며, 공간(공연장) 중심의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인적자원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한 사례도 있다.

해운대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래문화회관이 협업하여 제작하고 있는 연극 ‘왕국의 전설 - 잃어버린이야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콘텐츠이다. 이 콘텐츠의 주목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공모사업이 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문예회관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지역 내 문예회관이 협력하여 지역예술인과 함께 만든 콘텐츠, 부산 내 문예회관을 순회하며 공연한다는 점, 그리고 이후 콘텐츠를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 문화권의 동질성과 함께 작품의 보편성을 고려,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보유한다는 점에서 극장간 동반성장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대, 영도, 동래 문예회관의 사례처럼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 권역의 문예회관이 함께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해 지혜를 모은다면 제작 이후 콘텐츠의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울·경 권역의 문예회관은 부울경 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 이전부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부울경지회(총 34개 문예회관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문예회관의 현안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실무자간 콘텐츠의 공동제작과 문예회관 간 콘텐츠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의 콘텐츠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예회관 간의 콘텐츠 제작 정보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추진의 어려움, 아쉬웠던 점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은 문예회관의 입장에서 늘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잘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가치의 실현이 업무 추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가 문예회관과 지역 예술생태계의 이익을 바탕으로 양보와 합의가 뒷받침되고 공동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부울경 권역의 예술인과 관객 그리고 문예회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산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교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지역 예술가 간 교류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glocal)를 향하여-

김정주

GachiART 대표, 경북울 문화연대 부산지역 간사

부·울·경 메가시티와 문화 도시조성이 연일 기사화되고 모두가 변화의 기대를 품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된 부·울·경 특별 연합. 경제·산업·물류·교통 등의 연계발전은 물론 문화 분권, 문화자치로 수도권 중심에 대응하는 문화 향유와 동남권 문화발전의 기대가 그것이다.

'메가시티'라는 용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정의되는데 현재 세 도시를 합한 인구는 800만여 명에 그친다고 한다. 인구감소, 타 도시로의 이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단순히 내 지역이 살기 좋은 요인이 많다면 해결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 요인으로는 경제, 교육, 기후... 등이 있겠지만 문화 예술적 요인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도시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지속적인 생활 여건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문화예술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 문화적 연대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세 도시의 행정기관 간의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나 문화 행사는 관료적인 폐해에 노출돼 성과 중심의 보여주기식이거나,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부·울·경의 동일 정체성을 위한 연구와 부·울·경 지역만이 가지는 지역 특성, 문화적 요소 발굴과 발전의 문화적 연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소통과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남 문화권 형성의 목적과 부·울·경의 문화자치, 문화 분권을 위해 '경·부·울 문화연대'를 2022년 3월 25일 결성하여 출범했다. 부·울·경 이 아니라 '경·부·울'이라 한 것은 경남에서 부산과 울산이 나왔다는 지역문화의 연원을 고려한 이름이다. '경·부·울 문화연대'는 문학, 예술(미술, 음악, 사진, 건축, 무용, 영화, 연극), 문화기획, 문화정책 분야로 지역별 30여 명씩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뜻을 같이하

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가려 한다. 우선은 지역별로 구성원을 알아감과 동시에 문화연대의 방향성, 메가시티 조성의 문화적 역할, 문화 분권, 자치, 정책, 동남권 문화예술진흥...의 키워드로 주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학습하고 주제에 따른 전시, 작품발표, 연주 발표 등을 통해 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연대하여 어디에도 없는 동남권 문화형성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우선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지역에서는 지역성, 고유성, 역사성을 가진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펼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유명한 문화적 요소도 널리 알려져 하지만 숨어있는 부산스럽고 부산다운 부산의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려 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 권역 중심 관광지 연계코스를 구성하여 외래 관광객의 체류 기간에 지출액 증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지역관광을 활용하고 있다. 자연경관, 랜드마크, 지역의 먹거리, 특산물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예술이 더해진 이벤트, 체험, 관광 상품 등으로 경·부·울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연계한 예술여행코스, 문화예술 벨트 개발을 기대한다.

제안한다면 거대한 복합문화공간을 신설하기보다는 공방, 아틀리에, 작업실, 스튜디오, 연습실이라고 불리는 규모는 작지만, 문화예술의 날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술이 태동하며 진행되는 창작공간에서 예술가와 만나 소통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고 싶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에서는 예술가 작업 공간을 탐방하는 '브릿지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조성에 각 구·군별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의 공간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이웃에 놀러 가듯 '문화예술 마실'이라는 진정한 향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은 지역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여 지역 사회에서 전개될 새로운 아트프로젝트를 주목하고 기획해야 한다.

메가시티 개념처럼 경·부·울 문화예술가들이 동남권 문화형성에 참고될만한 지역 특성, 지역 연대 아트프로젝트 사례 중 예술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 일본의 성공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들은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에도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유명해져 관광객 유치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지역주민에게도 친숙한 예술 향유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생기게 한다.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프로젝트」

가가와현에 있는 나오시마(直島)는 미쓰비시가 중공업 단지를 건설하여 70여 년간 구리제련소를 운영해 번창했지만 공해와 폐기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졌으며 1980년대 초반 구리값 폭락으로 제련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 섬은 불법적인 산업폐기물, 공해로 흉물스러워졌고 일거리가 없는 제련공장 노동자와 가족, 관련 업종 사람들이 점점 섬을 떠나 노인들만 남은 섬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베네세 홀딩스 기업이 섬 전체를 섬과 예술이 공생하는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 된 아트프로젝트로 나오시마(直島), 토시마(豊島, 산업폐기물이 버려졌던 섬), 이누지마(犬島)를 무대로 기업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인구 유출로 인한 폐가의 재생, 자연환경과 예술작품의 조화, 섬과 예술작품 안내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과도한 도시화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한 아트프로젝트는 장소 특정적, 주민 참여적 요소로 쇠퇴한 섬을 예술로 되살린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다.

「세토우치(瀬戸内) 국제예술제」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12개 섬 2개의 항이 연대하고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 예술가, NPO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국제예술제이다. 지역 활성화와 바다의 복원이라는 콘셉트로 세토우치 일대 섬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벨트로 조성한 아트프로젝트로 3년마다 개최되고 개최년에 약 95만 명이 국내외에서 방문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니가타현의 도카마치시와 츠난마치 두 지역을 묶어 일컫는 지명으로 눈이 많이 오고 고시히카리 쌀의 산지이며 그 쌀로 빚은 술이 유명한 농촌 지역이다. 이 지역도 노령화 문제로 쇠퇴하는 지역에 넓은 평야와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세계 최대의 '대지의 예술제'가 762km² 전역에서 개최된다. 각 지역의 지리 및 문화적 개성을 잘 살려 에치고츠마리만의 예술 정체성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현대 예술가들을 초청해 기존의 에치고츠마리에 존재하는 상설 전시작들과 함께 소개 한다.

「국제 단남(丹南) 아트페스티벌」

1995년부터 27년간 출품 참가하며 한국 작가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국제 단남 아트페스티벌은 소재 표현에 중점을 두어 그 지역의 특산품인 철(鐵), 토(土), 목(木), 포(布), 종이(紙)를 소재로 한 현대미술 전시회로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국제 페스티벌을 29회 개최한 저력이 놀랍다. 단남은 일본 후쿠이현의 사바에서, 에치젠시, 이케다초, 미나미에쓰마에초, 에치젠초를 합쳐 부르는 말로 종이, 철, 도기, 칠기, 포목이 유명하다. 지역에서 국제적 문화예술의 발신지가 되어 해마다 많은 사람이 아트페스티벌을 위해 방문한다.

수년 전부터 국외 작가를 초청하는 국제교류 전시를 기획할 때 기존 제작된 작품을 가져와 전시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느낀 감정과 현장에서 구한 재료로 제작 의뢰하여 지역 특성을 담은 기획을 해오고 있다. 이방인이 체류 기간 바라보는 부산의 해석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숲에서 나무밖에 보지 못한 우리를 깨우쳐 주기도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문화예술관계자들의 고민과 역할로 세계로 발신하는 대한민국 동남권 지역문화 예술을 위해 지역민이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과 그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문화자원을 연구하고 공유하여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전 세계가 부산문화, 부산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의 발신지는 부·울·경의 작은 마을, 작은 공동체에서 출발 되길 기대한다.

부울경 아키비스트(Archivist)양성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박희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에 있어서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교류와 지역콘텐츠 생산 등을 아카이빙(archiving)이란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 작업은 문화예술의 특성을 보존 유지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장품이나 의미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디지털화하여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쯤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면서 거대한 정보화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고 1999년 공공기록물법(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아카이브 정책에 집중하였고 정부기록물보존소도 국가기록원으로 승격되었다. 큰 틀에서 문화예술의 아카이빙에 대한 실천을 살펴 보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의 정보화사업을 통해 문화재 전반에 걸쳐 조사 연구된 생산 기록물들을 DB화 하였으며 2016년 12월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한 '디지털시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치창조'라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유,무형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의 특이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실생활의 아카이브 작업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면, 1997년 한국토지공사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대해서 사라지는 주민들의 삶과 자취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필수로 진행하였다. 한국토지공사의 아카이브 작업 첫 결과물로 2006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마을의 '사이버 고향전시관'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에는 대구의 혁신도시 프로젝트로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대구혁신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을 그리고 2009년에는 인천 영종도의 '영종하늘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 등등 전국에 걸쳐 9개의 혁신도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무형유산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은 2012년 국립무형유산원이 설립과 함께 시청각 자료와 문서 작품등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형유산 전승자 구술채록사업'도 진행하면서 생활도구와 사진자료 등에 관한 생활공간도 기록하고 있다.

지역활동가로 아키비스트(Archivist) 양성해야

부울경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은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하면서 창작해온 1차적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작고한 예술가나 각종 공연 전시 등의 기록물들이 각기 다른 기관과 분야에서 보관하는 것 보다 광역화된 틀 속에서 공유 가능한 아카이브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카이브들의 문화예술적,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정리와 분류들은 도서관이나 출판물 등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넘어서 지역 문화예술의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부울경 문화예술 아카이브 작업은 기록된 자료의 평가와 수집 그리고 진본 확인, 보존 검색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록학(Archival science)의 기본 지식을 갖춘 기록관리자를 양성하고, 다음 단계로 문화예술에 특화된 역량을 강화하여 부울경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을 담당할 아키비스트(Archivist)를 양성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울경 아키비스트들은 지역문화예술의 역사적 기록을 선별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분류와 정리를 통해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후학 그리고 문화예술의 계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아카이브 작업과 아키비스트들의 활동은 문화예술의 특성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조와 변화의 지평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2006년에 기록물관리와 기능적 분류 방법, 번호 보존기간과 장소 및 비치기록의 기준과 검색어 지정 등을 현재의 실정에 맞는 '분류 기준표'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부울경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은 국가 분류기준표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아카이브 규정과 제도를 동일하게 규격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울경의 아키비스트들이 활동한 결과물로 생산된 아카이브를 평가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하여 등록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관이나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후 분류, 편철 과정을 거쳐 검색과 활용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아카이브 작업의 제도화된 공정도 필요하다.

기록공동체(Archives Network)로 지역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

부울경이 연계한 기록공동체(Archives Network)로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 도큐멘테이션(Locality Documentation)의 장/단기 전략을 설정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우선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대상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 수집이 진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방식으로 아카이빙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울경 아카이브 공동체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부울경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강화와 보다 넓은 외부세계로 지역 문화예술을 알리는 확장성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한다.

단순한 부울경 문화예술이라는 아카이브 작업에서 발전하여,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인해 공동체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광역화된 아카이빙을 실천할 수 있고, 부울경 지역 다수의 양성된 아키비스트들이 찾고 만들어낸 결과물에 의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축적으로 문화예술의 자본 생산성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아카이브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

서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파일형식과 자료형식의 표준화 등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된 상태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여야 인력과 행정력 그리고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아카이브 작업에 있어서 자료의 기증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준이 있어야 금전적 가치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부울경 공동체 아카이브 작업의 문화예술 결과물로 저장된 집단적(collective memory) 기억과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아울러 세대를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활용 가능한 자산과 부가적으로 문화예술 생산이 가능한 자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메타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부울경 문화예술 아카이브 작업의 형식 표준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시민들이 아카이브 활동가(activist archivist)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아카이브 네트워크 형성을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기 가꾸어 나가는 보편적 기록 공동체에 의한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정체성확립과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가하는 상설 협의체로서 '부울경 기록공동체(Archives Network)'의 결성과 정기적인 진행 성과를 관리하는 실무적인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¹

- 공법인 간 협력 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프랑스의 문화분권 -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지방분권화 개혁을 추진하며 행정구역 변경, 권한과 재정의 이양 및 배분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와 동시에 문화의 특권화 폐지 및 지역 간 문화 불평등 해소 등 문화분권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앞서 말한 그런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문화유산 보호를 비롯해 프랑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 및 민간 등 여러 주체들이 문화분권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왔는지 파악 가능하다. 이번 정책보고서 돌아보기에서는 특히, 프랑스 공법인 간 협력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요약 발췌하여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동 협약부터 실험적인 시도까지, “계약”을 통한 공법인 간 협력

구분	문화헌장 (Chartes culturelles)	국가-레지옹 계획계약 (Contrats de Plan Etat-Région)	실험 (Expérimentation)
재정년도	1974년	1982년	2003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 촉진 및 문화 사업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꼬뮌, 레지옹 등과 공동으로 협약 체결² - 문화분야에 있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 최초의 계약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중요계획의 시행을 위해 국가의 대표인 레지옹 지사와 지자체 대표 간 계약 - 레지옹은 계약 목표 달성 위해 민간, 공법인 등 다른 당사자와 별도계약 체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자체가 3년 간 계약 체결 후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방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협력 - 사업별 계약 당사자인 지자체의 지위, 참여방식, 국가-지자체 간 예산배분, 계약기간 등 상이 → 지역 특수성 반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사업 단위로 계약 체결 - 국가와 지자체 간 협의 통해 투자예산 범위설정 - 최소 5년의 계약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실험 이후 평가를 통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될 시, 미지속 → 가역성과 효율성의 장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지자체로의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의해서만 계약 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헌장, 국가-레지옹 계획계약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이 국가에 있음

#공공단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구분	문화공익단체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culturel, GIP)	문화협력영조물법인 (E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culturelle, EPCC)
관련법 재정년도	1991년	2002년
주요내용	-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공익 목적의 시설, 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해 국가, 지자체, 영조물 법인, 사단법인과 그 밖의 사법인 간 협약가능	- 지역의 중요 문화시설 및 공공문화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 및 국가가 연합하여 만든 공공단체(2020년 기준146개소) ³
특징	- 일정기간 간 문화활동 수행 - 유연한 구조의 공법인	- 지자체가 국가와 협력 하에 법인 설립 가능한 점을 법으로 명문화 - 독자적인 예산과 운영 방식으로 지역 문화정책 추진 - 행정적/상공업적 성격의 유형을 지님 ⁴
한계	*지속 불가능한 구조 ⁵ - 일정 기간만을 위해 창설 가능하며 30년 초과 불가 - 그룹의 구성원에 의해 직원 파견만 가능, 자체 직원 채용 불가	*법적, 관리적 측면의 한계점 ⁶ - EPCC 설립 참여 파트너들의 연간 최소 기부금액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못함 - 꼬원연합체 수의 증가로 인한 계약 체결, 관리의 어려움

#시사점

- ▶ 프랑스는 양자 간, 다자 간, 국가-지자체 간, 지자체-지자체 간, 다른 종류의 공법인 간(횡적 협력), 같은 단계의 공법인 간(종적 협력) 등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 분야 각 주체들이 협력하는 형태의 다변화를 시도해옴
- ▶ 지역은 자발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중앙과 지자체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
- ▶ 지자체, 영조물법인,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해짐. 이에 따라 국가는 가교 역할을 맡고, 지역은 주체성 및 자율성 확대됨

1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2016

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레지옹(Région)은 우리나라의 도와 유사한 행정구역을 뜻하며,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은 광역규모의 자치단체, 코뮌(Commune)은 우리나라의 시, 읍, 면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역

3 손동기, 프랑스의 문화협력공공법인으로 살펴본 균형발전정책과 문화정책, <월간공공정책 189>, 2021. p67

4 행정적 성격의 영조물 법인은 교육시설과 문화유산, 유물 보호의 임무를 지닌 시설이며, 상공업적 성격의 영조물법인은 주로 창작, 공연의 보급에 대한 역할을 하는 시설임

5 김규원, 프랑스 지방 문화분권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 <문화와 정치, 2권 2호>, 2015, p115

6 손동기, 상동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07. - 08.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광주문화재단 교류 협약 10주년 기념식 개최(7.6)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올해 부산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7월 5일 감만창의문화촌에서 양 기관 교류 협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향후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지역 예술인과 한 걸음 더 가까이(7.7)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6월 29일 부산예술인행(정)복(지)플랫폼 최종 선정된 퍼실리테이터(예술인)와 협력기관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퍼실리테이터(예술인)는 7월 4일부터 3개의 협력기관에 파견되어 지역 예술인을 만난다.

- “부울경 문화예술인과 문화분권을 상상하다”(7.21)

부산문화재단은 7월 27일 오후 3시 블루포트2021에서 [부울경 문화분권·문화자치 상상토크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를 개최했다. 이번 상상토크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 및 자치전략 연구’와 연계된 행사다.

- 부산문화재단 3년 만에 쓰시마시, 시모노세키시 등 방문(8.9)

부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일본 조선통신사 연구 지역과의 교류가 3년 만에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조선통신사 연구 지역과의 추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한일 양국의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서로 뜻을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문화회관

- 전남 문화예술 다시 활력을! (포스트 코로나, 아트 붐업 지원사업)(5.19.)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대학의 공연·전시 역량 강화를 위해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과 8월 10일(수)에 「지역 문화예술 역량강화 협력」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정문화재단

- 부산 금정문화재단,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오픈 콘서트 개최(8.18)

부산 금정문화재단은 8월 23일(화) 19시부터 부산대역 1번 출구 문화나눔터에서 '금정버스킹과 함께하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오픈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중대사고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에게 보고 의무 부여(7.19)**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찾아 공정하게 누리는 문화균형발전 추진한다(8.10)**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10일(수) 오후 2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하는 실행방안 논의(8.23)**

심리학계와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위, 텀블벅과 예술가 크라우드펀딩 역량 키운다(8.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텀블벅(대표 김동환)은 8월 18일(목) 예술가를 대상으로 ‘ARKO X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아창제 첫 지방연주 개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8.16)**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작음악제인 ARKO한 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가 부산문화회관과 공동 주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특별 연주회를 8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인천문화재단

-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심포지엄 개최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8.23)**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은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9월 1일(목)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설에서 개최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상남도 지역문화재단 협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8.18)

경남도내 광역·기초문화재단 협의체인 '경상남도 지역문화재단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화재단별 현안 공유와 공동사업 발굴 등 교류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문화재단

- 2022년 강원 콘텐츠산업 발전방안 라운드테이블 개최(7.19)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위원장 홍지영)는 돌아오는 7월 27일(수), 7월 29(금) 양일간 '2022년 강원 콘텐츠산업 발전방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도출되는 의견들은 추후 '강원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정책 거버넌스 협의체'의 주요 회의 주제로 지정하여 강원도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책 및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대구문화재단

- 2022 대구예술발전소 대구×파리 교류기획 전시 개최(8.11)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주관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후원하는 기획전시 <Daegu-Paris art exhibition 2022_The Blue Bird>를 9월 6일(화)부터 10월 16일(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다.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이괄 수장인 원장 공개모집(8.23)

대구문화재단은 10월 출범을 앞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경영혁신 역량을 갖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을 공개모집 한다. 대구문화재단은 9월 중 재단정관을 변경하여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진흥원장은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정책을 이끌어 가는 수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문화재단

- <제주해녀 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마을 브랜드 공연 육성을 위한 첫 축제형 쇼케이스 공연 시작(8.18)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은 제주해녀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한 축제형 마을 브랜드 공연 육성을 위한 '2022년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마을브랜드 공연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쇼케이스 공연을 북촌리, 협재리, 고내리에서 진행한다.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7호

2022.07.- 08.



02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2. 8. 31.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서승우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